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이 성 형
(동국대 강사, 정치학박사)

1. 머리 말

멕시코혁명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형성된 그리오요 중심의 과두제 국가가 아래로부터 해체되는 최초의 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독립, 사회 정의, 자유 등의 근대적인 가치관을 내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사회혁명이란 점에서 멕시코혁명은 이 대륙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 더우기 혁명 이후 성립한 멕시코 국가가 지난 80년간 보여준 정치적 안정성(소위 ‘멕시코 민주주의’)은 ‘군부독재의 대륙’이란 오명을 아직 깨끗이 청산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혁명이 가지는 의미는 비단 멕시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멕시코 혁명 8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멕시코 혁명사에 대한 연구 경향을 하나의 논문에만 요약하려는 시도 만큼 무모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혁명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근 30년에 이르렀고, 혁명사를 보는 이데올로기적 관점도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연구분야도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인물사나 정치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사, 지성사, 지방사 등으로 확장되었기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것 같다.¹⁾ 더우기 최근의 연구경향은 멕시코 혁명의 실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미시역사적인(microhistorical) 연구나 지방사 연구를 통해 혁명의 통일성보다는 ‘여러 개의 혁명’(many revolutions)이 지닌 다양성과 원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거

1) 멕시코혁명사 연구의 주요 경향과 저서들에 대한 비평에 대한 글로는 Bailey(1978), Carr(1980), García(1987), Gilderhus(1987), Goldfrank(1979), Guerra(1989), Harris(1982), Knight(1986a), Meyer(1969) 등이 있다.

6 이베로아메리카 研究

시적으로 혁명의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향들 때문에 혁명사 연구의 정체성이 종종 유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 글은 최근에 제기되는 다양한 연구경향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보다는 다소 범위를 좁혀, 혁명사 연구의 촉매적인 계기가 되었던 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멕시코 좌파 학자들이 제출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위에서 간단히 밝혔듯이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지방사 연구문헌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때로는 사례연구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 혁명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멕시코 혁명사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히 개괄해 보기로 하자.

2. 정통적 견해와 수정주의적 견해

오늘날 멕시코 혁명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멕시코 사회에 사는 모든 정치세력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혁명과 어떠한 형태로건 결부시키려고 할 정도로 혁명(내지 그 이념)에 대한 해석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은 사실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지배정당인 제도혁명당(PRI)과 그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 진보, 독립이란 혁명의 이념은 ‘혁명의 제도화’ 내지 ‘개혁의 지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멕시코 혁명을 하나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이러한 해석은 1920년대부터 적어도 1940년대까지는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되어 왔고, 다양한 관변 이데올로그들을 통해 세련화되어 왔다. 정통적 공식적 입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은 경제적 후진성, 정치적 억압이라는 반식민지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단합된 민중들이 쫓기함으로써 이뤄졌다. (2) 혁명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continuing process)으로, 멕시코 국가와 제도혁명당의 일당민주주의는 이를 제도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1930~1940년대에 성립한 소위 ‘멕시코’ 학파(‘lo mexicano’ school)에 속하는 라

2) 멕시코혁명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과 더불어 함께 논의되는 주제는 혁명 이후 국가 성격에 대한 것이다. 현재 멕시코 사회의 좌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관련문헌으로서는 Reyes E.(1973), Leal (1986), Gilly et al.(1980)이 있다.

모스(Samuel Ramos), 가오스(Jose Gaos), 세아(Leopoldo Zea) 등은 멕시코 혁명 속에서 진정한 ‘멕시코성’(mexicanidad)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혁명의 민족적 민족주의적 단합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사빠따, 비야, 까란사, 오브레곤 등의 혁명적 까우디요 개인의 영웅담으로 과장하여 채색했던 1910~20년대의 역사기술 경향에서는 탈피하고 있으나, 사료에 기초한 본격적인 역사연구를 지향하기보다는 현실정치적 요구에 대한 당위론적 해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멕시코 혁명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훈련된 전문연구자들이 부족했고, 또 수많은 문서보관소들이 미공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학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과거 디아스 정권 시대의 과두제 세력의 자제들만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또 혁명에 대한 공식적 해석에 배치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문서보관소를 정부가 공개하길 꺼려한 것도 혁명사 연구의 발전에 장애를 주었다(Katz, 1989:88). 혁명이데올로기의 선전은 난무하지만 혁명사 연구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1930~1940년대의 모습이었다.

멕시코혁명에 대한 공식적 해석은 미국학계 내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뉴딜식의 진보주의’와 ‘선린주의’(Good-Neighborism)에 입각하여, 멕시코 혁명을 곧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마테로나 까란사와 같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서서 혁명사를 해석하였고, 이들의 이념을 물질화한 멕시코 국가는 조만간 경제적 진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시각은 멕시코 국가의 권위주의화가 가속화되는 1950~60년대 이후에도 의연히 유지되었는데, 쿠바혁명의 도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란 의미에서 멕시코 혁명과 멕시코식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까르테나스 대통령 시대(1934~40)의 개혁정치가 끝나고 멕시코 정치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정통적 공식적 해석은 점차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 해석에 대한 반발이 보다 가시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1968년 플라넬톨코 학살 사건이다. “1917년 헌법의 적용,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의 독립, 자유선거 실시” 등의 민주적 요구 사항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학생데모대에 정부군이 발포함으로써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은 제도혁명당이 내세운 ‘멕시코 혁명의 이데올로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멕시코 내부에서 혁명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다.

바로 이때부터 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멕시코 학계의 분위기도 점차 변한다.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들과 멕시코대학(El Colegio de México)에서 멕시코 혁명에 관련된 사료 집들이 편찬되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의한 혁명사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속출하게 된다. 이미 소설가인 푸엔테스(Carlos Fuentes)나 시인인 빠스(Octavio Paz)에 의해 ‘혁명의 신화’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초기엔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던 곤살레스 까사노바(Pablo González Casanova)에 의해 ‘멕시코 민주주의’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혁명사 연구는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

이 당시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혁명 당시 급진적인 개혁을 표명했던 사빠따나 비야, 그리고 플로레스 마곤(Flores Magón) 등의 사상이었는데, 이는 현실로 실현되지 못했던 혁명의 약속에 대한 향수를 반영할 뿐 아니라 당시 노골화되던 정치적 반동화에서 소의를 당한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히이(Adolfo Gilly)가 레콤베리 감옥에서 쓴 『중단된 혁명』(*La revolución interrumpida*, 1972년), 아르도바(Arnaldo Córdova)의 『멕시코혁명의 이데올로기』(*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1973년 출판) 등은 바로 이 시기의 대표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혁명에 대한 정통적 해석의 골격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정반대의 해석을 제기한다.

물론 수정주의적 해석이라 해서 이를 하나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정통적 해석 내지 공식적 해석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지, 접근방법이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정주의적 해석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의견대립이 더욱 클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멕시코 학계의 수정주의적 해석이 내세우고 있는 혁명사 이해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자본주의적 발전의 관점에서 멕시코의 근대사를 이해함에 있어 그 기점을 1910~17년으로 잡았던 전통적 견해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Porfiriato)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 혁명의 추진세력을 민중적 민족주의적 연대에 기초한 민중이라고 본 정통적 견해는 산업부르주아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혁명운동 속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상이한 자유주의적 이념의 변종들(마테로주의[maderismo], 까란사주의[carranzismo], 오브레곤주의[obregonismo]), 사빠따주의(zapatismo), 비야주의(villismo), 마곤주의(magonismo)가 서로 내적 모순을 지닌 채 상쟁하였다. (3) 멕시코 혁명이 연속적인 과정으로 제도화된 형태를 띠면서 지

속된다는 신화는 이미 개혁의 잠재력이 소진된 1940년대에 깨어졌다. (4) 멕시코혁명이 제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등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역사적 블록이 요구된다.

정부와 관변 이데올로그들의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견해는 1970년대에 이르러 멕시코의 경제기적이 소진되고 ‘안정적 발전’ 모델이 파산함에 따라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그리고 당시에 점차 활성화되던 사회운동의 공세와 맞물려서 빠른 시간내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수정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재야 세력 내에서도 혁명에 대한 이해는 천차만별이다. 그 이유는 제도혁명당 정부를 비판하는 데는 같은 보조를 취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처방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최근까지 좌파 내부에서 분화된 몇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혁명사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트로츠키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히이, 멕시코혁명의 민중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그람시주의자 꼬르도바,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시각에서 있는 정통좌파 세모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혁명사 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멕시코혁명에 대한 좌파적 해석의 기원은 코민테른 시기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다. 코민테른 제 6차 대회에 제출된 「식민지 문제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대표단의 토론 보고」에서 멕시코 대표 라미레스는 멕시코혁명에 대한 토론시에 제기된 다양한 견해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분국의 서기인 아르헨티나의 빅토리오 꼬도비아는 혁명의 뿌리부르주아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혁명정부를 “혁명적 민주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멕시코의 현 상황은 케렌스키 정부의 러시아 상황에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멕시코혁명이 가져다 준 성과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라미레스를 포함한 다른 논자들은 혁명의 성격을 “전형적인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파악하고 혁명이 봉건적 농업부르주아지를 겨냥한 ‘반제 반봉건’의 과제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arios, 1928:380-1). 1930년대에는 바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를 ‘봉건제 사회’로 파악하고 1910~17년 혁명을 반제 반봉건 혁명으로 규정하였다(Rafael Ramos Pedruza, Vicente Lombardo Toledano, Moises Ochoa Campos, Raúl Mejía Zúñiga 등). 이러한 해석에 따라 좌파 세력들은 혁명 이후 멕시코 정부들이 지닌 반제 반봉건적 지

향을 계속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는 전술을 내세웠다.

좌파들의 방침은 1930년대 가르테나스 대통령 시대의 민중주의 정치와 결합되면서 집권여당의 헤게모니하에 흡수되었고,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광범한 민중적 동맹”을 주장하던 집권여당의 논리는 반제 반봉건을 위해 민족주의적 세력의 대동단결이 요구된다는 주장과 크게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족의 대동단결”을 주창한 노동운동 지도자 롬바르도 푼레다노의 멕시코혁명 해석은 이러한 논리를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민중주의 정치가 지닌 사회개혁의 잠재력이 소진된 194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들은 지식인들과 좌파 세력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어 왔고, 플라벨톨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초라한 몰골을 드러내고 나서야 비로소 혁명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멕시코혁명사 연구의 큰 줄기는 바로 제도혁명당의 공식적 해석과 롬바르도주의적 혁명사 이해에 대한 반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좌파적 해석 역시 멕시코 역사와 국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 중 몇 가지 비중있는 해석들에서 상이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트로츠키주의적 해석 : 히이의 ‘중단된 혁명’론

롬바르도주의적 혁명 인식에 가장 신랄한 비판을 퍼붓는 좌파의 흐름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다. 제 4 인터내셔널의 포사다(Posada)파나 만델파는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원용하여 멕시코 혁명을 분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 가장 뛰어난 논자로서 아돌포 히이(Gilly, 1980)나 마누엘 아길라르(Aguilar, 1978, 1980) 등을 들 수 있다. 히이가 보는 멕시코혁명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멕시코혁명은 중단된 혁명이다. 농민대중과 뿌띠부르주아지 빈곤층이 절기함으로써 최초로 혁명은 반제 농민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혁명은 동시에 주도적인 부르주아적 뿌띠부르주아지 지도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이니셔티브로 주어졌 명백히(empíricamente)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획득하였다. 프롤레타리아 지도력과 노동자 강령의 부재로 혁명은 두 번이나 중단되어야만 했다. 최초에는 1919~20년 사이, 다음에는 1940년 이후 중단되었기에 혁명은 사회주의적 결말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세력은 대중을 패배시켜 혁명의 기본적 성과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멕시코 혁명은 대중의 경험과 의식에 있어서는 영속혁명이자, 성과물의 객관적 전진이란 측면에서는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두 번이나 중단된 혁명이다. 이미 혁명은 민족주의적, 프롤레타리아적,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 3의 상승국면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승은 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중단된 바로 그곳에서 출발한다.” (Gilly, *La revolución interrumpida. México, 1910~20: una guerra campesina por la tierra y el poder*, Ed. El Caballito, México. 1971, p.388; Gilly et al., 1980, 82-3에서 재인용)

히이나 마누엘 아길라르는 공식적 해석의 핵심 테제(“혁명의 지속”, “혁명의 제도화”)를 거부하고, 멕시코혁명은 두 번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에 성립된 좌파적 인식들의 공통분모는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좌파 내에서 주된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정통좌파가 주장하는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혁명’ 테제이다. 마누엘 아길라르는 이러한 이해를 ‘스탈린주의적’ 해석이라고 막지붙이고, 멕시코에는 “성공적인 ‘부르주아 민주혁명’은 없으며, ‘미완의 영속혁명’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Aguilar, 1978:15).

이들은 멕시코혁명 속에서 부르주아 혁명의 요소와 더불어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농민전쟁의 요소를 지적하고, 이 두 개의 혁명이 ‘결합된’(combinada) 이중성을 강조한다(소위 ‘결합혁명론’). 따라서 멕시코 좌파가 지향해야 할 실천은 결합된 혁명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적 요소를 혁명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외곽에서” 대중의 자기조직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Gilly, 1980:53).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멕시코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대중의 격렬한 분출” 현상이다. 특히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들의 집단적 행동과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한 아얄라 계획(el Plan de Ayala)과 사빠따주의(zapatismo)를 혁명의 핵심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남부에 기반을 둔 사빠따의 농민군은 북부에 근거한 비야의 농민군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집단적 욕구를 독자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히이는 비야주의(villismo)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한계 내에서 ‘토지와 정의’를 내건 “비야의 마테로주의”(maderismo de Villa)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이념은 북부의 농민운동이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에 속박당해 있음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빠따주의는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농민세력의 자립적인 조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비야주의가 지닌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사빠따 군대는 과거 농민공동체의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뤼에블로(pueblo)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군 중에서 오랜 기간동안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다. 바로 이 뤼에블로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 연합’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빠따의 농민군은 단순히 토지를 회복하고 재분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에 농민의 자치조직까지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한다.

‘대중의 자기 결정권’(que las masas decidan)을 사빠따주의의 핵심적 이념으로 파악하는 히이는 마곤주의(magonismo)에서 동일한 내용을 찾아낸다. 비록 아나키즘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었고, 세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지만 “국가의 바깥에서” 노동자의 자치를 조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마곤주의는 사빠따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마곤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발전된 조직노동자 운동의 이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노동운동의 전위 세력과 급진적 뾰뾰부르주아지가 자유주의적 이념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행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히이는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전개의 바탕에는 과거 정통좌파가 멕시코 역사를 파악하는 도식인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는 반봉건 사회”라는 테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은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 디아스 시대 역시 이미 제국주의 자본의 침투로 인해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주변부 자본주의)로 변화했음을 지적하고, 멕시코혁명은 바로 “제국주의가 강요한 자본주의적 길이 1910년 당시 멕시코의 반프롤레타리아화된 농촌 대중의 저항에 의해 파탄에 직면하게 된 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Aguilar, 1980:114). 멕시코혁명을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파악하는 정통좌파의 견해는 이들에 의하면 ‘단계론적’ 이해에 빠져 있다. 민족부르주아지는 민주혁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외국 자본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승리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히이의 해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혁명의 전체 과정 속에서 급진적인 요소로 돌출한 부분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혁명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빠따주의를 혁명의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마곤주의의 급진적 강령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멕시코혁명이 다른 길로 발전할 가능성을 은연 중에 암시한다.

사빠따주의의 정치적 요구가 “국가의 바깥에서” 제기되었고,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열망을 급진적으로 대변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과거 공동체적 토지 소유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따라서 아시엔다를 해체한 대안으로 제기된 공동체적 소유가 과연 역사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인 의미를 띠는 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혁명 이후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 토지개혁으로 창설된 에히도(ejido) 제도—시장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았다—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하였다기 보다는 억압하였다는 로헤르 바르트라(Bartra, 1987:18)의 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공동체적 소유가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멕시코혁명은 그 무대가 기본적으로 농촌이었고 전형적인 ‘농민혁명’이었다. 당시 도시와 농촌의 결합도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도시의 정치조직이나 노동운동이 혁명과정에 기여한 비중 역시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의 운동으로 존재했던 마곤주의가 도시와 농촌에서 전개되는 혁명과정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혁명의 전체상에서 사빠따주의나 마곤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그 위에 각각의 이념들이 지닌 의미를 되새길 때만이 비로소 혁명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히이는 또 하나의 혁명 속에서 전개된 “단절” 내지 “중단”을 주장하면서 1910~1917년 혁명과 현재 시점에서 제기되는 과제가 여전히 동질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1910년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제기된 반제 반봉건의 과제와 현재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과제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연대기적 차이를 넘어서 본질상 차이를 갖는 것이다.

히이의 연구는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사빠따주의나 마곤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정통적 해석에 정면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정통좌파적 해석 : 세모의 ‘부르주아 민주혁명’론의 수정

정통좌파의 멕시코혁명 해석은 과거 1630년대에 수립된 롬바르도주의적 이해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나, 부르주아 민주혁명론의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르트라(Barttra, 1974), 세모(Semo, 1980, 1985)와 같은 멕시코 학자들과 루덴코(Rudenko, 1983; 소련), 나이트(Knight, 1980; 영국) 등과 같은 외국인 연구가들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들은 과거 혁명사 해석에서 디아스 시대를 반봉건 사회로 파악한 관점을 정정하고, 19세기 말엽에 이미 자본주의적 질서가 자리를 잡았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반봉건’의 의미도 수정을 겪게 된다.

대체로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좌파 학자들은 혁명 이전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를 봉건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사회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아시엔다 지주(hacendado)는 봉건적 지주로, 아시엔다의 빼운(peón)은 농노와 유사한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의 많은 연구에 의해 멕시코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한 시기가 적어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중엽 내지 말엽 사이였다는 견해가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시엔다와 빼오나헤(peonaje)는 전자본제적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상세한 내용은 Rudenko, 1983a; Knight, 1986a, 1986b를 참고

하라).

원래 빼오나헤는 스페인 식민시대 때부터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 멕시코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지역마다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19세기 말엽 소위 ‘자유토지’(las tierras libres)를 제한하는 정책의 귀결로 농민과 인디오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가 대량으로 수탈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빼오나헤는, 고전적인 채무노예제와는 달리—비록 경제외적 강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거의 경제적 강제에 의거한 임금노동자 범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Knight, 1986b:41-8). 아시엔다 역시 엔포미엔다와는 달리 봉건적 소유 형태가 아니라 부르주아적으로 진화한 토지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엔다 지주는 그 성격상 ‘부르주아화된 지주’(el terrateniente aburguesado)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아스 시대와 혁명 이후 사회의 성격은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보면 별 다른 차이점이 없지 않는가? ‘디아스 시대는 봉건제 사회’란 테제를 정정한 정통좌파 이론가들은 양자의 차이점을 자본주의적 발전의 차별성에서 찾는다. 디아스 시대에 전개된 자본주의적 발전은 주로 과두제적 지주와 외국자본가들이 농민들과 인디오 공동체를 희생함으로써 소위 ‘위로 부터의’ 자본주의화(소위 ‘용커형’)를 급속하게 추진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멕시코혁명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디아스 시대의 용커형적 진화에 대립하는 농민적 진화의 길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혁명의 사이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된다(Semo, 1975).

세모는 독립혁명(1810~21), 대개혁(Reforma, 1854~67), 멕시코혁명(1910~17), 가르테나스 시대의 개혁(1935~39) 모두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변혁의 틀에서 사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나오는 구체적으로 상이한 과제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독립혁명과 대개혁은 대체로 프랑스혁명이나 스페인혁명 등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과 유사하나, 1910~20년 혁명은 러시아의 10월혁명과 같이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혁명의 한계를 넘어선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혁명에서 나타난 농민의 혁명적 요구, 마곤주의의 아나키즘적 요소 등을 이해할 수 있다(Semo, 1980:136-9).

요컨대 멕시코혁명은 민족독립과 토지문제 해결을 주된 과제로 내건 ‘반제 반봉건’ 토지혁명으로서 후진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볼 수 있는 봉건적 ‘유제’를 혁명적으로 척결하려는, 농민적 진화의 길을 대변한다. 혁명 이후 아시엔다 제도가 해체된 것은 바로 이를 응변으로 증명한다. 물론 후일 에히도(ejido) 제도의 확립으

로 농민적 진화의 길은 왜곡되어(바르트라든 이를 ‘멕시코의 길’ [vía mexicana]이라 부른다)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장애를 주지만, 이를 문제삼아 부르주아 혁명적 요소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0년대 말에 형성되는 정통좌파의 인식 틀은 바로 1930년대의 좌파적 인식이 갖는 한계를 수정하고 부르주아 민주혁명론을 레닌의 ‘두 개의 길’론을 원용하여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멕시코혁명에서는 의식적인 노동자계급의 참여가 없었기에 노농동맹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노동자 단체인 ‘세계노동자관’ (la Casa del Obrero Mundial)에 속해 있는 적색대대(Batallón Rojo)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아래에 놓여 혁명적 농민운동 세력과 대립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멕시코 부르주아지는 농업부르주아지로 제국주의 자본에 포섭된 종속성을 띠고 있었으며 한번도 자신의 자립적 발전계획을 표현하지 못한 무능함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카르테나스 시대와 같이 민중세력에 우호적인 세력 배치가 있을 때에는 가능했던 개혁이 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보수세력들에 포위당하고 다시 반혁명적으로 재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통좌파는 멕시코혁명의 개혁적 잠재력이 1930년대 말을 기점으로 소진되고 멕시코 사회는 점차 반혁명적으로 재편되어 오늘날과 같은 ‘전제적 대통령제’ (el presidencialismo despótico)에 입각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멕시코 사회는 이 체제에서 필박을 받는 노동자, 농민이 주력이 되는 민중 세력에 의한 새로운 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상세한 것은 이성형, 1990: 제 6장을 참조하라).

3) 민중주의적 해석 : 코르도바의 ‘민중주의 혁명’론

1972~73년에 연속적으로 출간된 코르도바의 저작 『멕시코 정치권력의 형성』과 『멕시코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좌파 수정주의 해석 중에서 가장 이상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혁명을 사회혁명(revolución social)로 파악하는 좌파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코르도바는 고전적인 정치혁명(revolución política)의 성격을 강조한다. 그가 멕시코혁명을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보는 이유는 혁명 세력내 다양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헌정주의자 카란사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이념(사적소유 원칙의 극단적인 옹호, 자본주의적 발전 프로젝트, 사적 이해와는 독립된 법치국가의 제도, 공적 자유의 법제화 등)이고 혁명의 결과 확립된 질서도 이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Córdova, 1972:24-31).

사빠따나 비야의 농민군이 보여준 혁명적 열기도 존재했지만 혁명 세력내에서 지도력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인구였지만, 농민군은 강

령이나 이데올로기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부분 지역주의적이고 국지적인 이해에 결박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동원력을 보여주었던 농민 세력들도 멕시코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비전을 갖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트로츠키주의자인 히이와는 달리 쥘르도바는 사빠따주의나 비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급진성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할 뿐 아니라 전체 혁명 속에서의 비중도 낮추어 본다.

멕시코 혁명이 민중혁명(revolución popular)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여 부르주아 세력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혁명세력 내에서 그 힘을 배타적이고 지배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다. 농민운동의 참여는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노동운동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농민군과 적대적인 대립으로 발전한 시기도 있었다.

쥘르도바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과두제 권력을 파괴하는 데 노동자 농민 세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또 농민 세력의 자립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사회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민중주의’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혁명은 ‘민중주의 혁명’(revolución populista)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Córdova, 1985:32). 이러한 계급역학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혁명 이후 멕시코 국가의 ‘대중국가’적, ‘대중정치’적 성격이다.

이러한 민중주의 이념이 발전하게 된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쥘르도바는 혁명 당시 중간층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 이념과 결합되어 있던 ‘사회개량주의’(reformismo social)이념이다. 바로 이 사회개량주의 이념은 1917년 헌법으로 물질화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유관계에 변화가 이뤄져 국가의 절대적 통제아래 부(토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 (2)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 확립된다. (3) 국가 지도아래 사회계급간의 타협을 매개하는 정치적 법적 제도가 만들어진다. (4) 노동자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 (5) 강력한 국가가 항구적인 권력체로 자리잡는다.

이런 맥락에서 쥘르도바는 멕시코혁명을 민중주의 혁명으로 보는데, 혁명 이후 체제를 ‘민중주의 체제’로 파악한 연유는 다음에 근거한다. 첫째, 민중주의 체제는 대중노선을 통해 민중계급의 제한된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사회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1929~38년에는 공식적인 정당과 노조 조직에 흡수하여 조합주의적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둘째,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구축하여 소유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에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고 계급대립에 있어서 최종적인 중재권을 부여하였다. 셋째, 사적 소유제 원칙과 계급타협

정책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였다(Córdova, 1972; 33-4).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는 멕시코 역사를 재해석한다. 그는 디아스 시대나 혁명 이후 시대 모두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Córdova, 1985:15-6). 따라서 양자의 차이점을 ‘독재/민주’ ‘봉건제/자본제’ ‘지역주의/중앙집권주의’ 등의 도식으로 파악함으로써 혁명의 의미를 과장하는 정통적 견해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진화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정통좌파의 견해와는 달리 사회혁명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멕시코혁명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수정주의판 해석(예컨대 라몬 루이스의 『대반란』)과 동일한 입장에서 서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부르주아적 지주, 상인자본가, 외국 독점체 등의 보수적 이해에 기반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던 디아스 시대와 혁명의 결과 제한된 범위이지만 농민적 진화의 길이 열린 이후의 시대를 ‘자본주의 발전’이란 거시적인 범주로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멕시코혁명이 가져다준 결과로서 아시엔다의 해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선진적인 헌법, 국민대중 의식에서의 급격한 전환, 노동자 조직에서의 진보 등을 놓고 볼 때 그 ‘혁명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맺으면서

멕시코혁명에 대한 좌파 수정주의적 견해를 살펴보면 우리는 멕시코 역사의 해석 자체가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혁명당의 체제옹호론적 해석에서부터 이를 비판하는 좌파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혁명에 대한 해석은 멕시코정치발전의 궤적을 따라서 다양한 굴곡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좌파 수정주의의 입장은 멕시코혁명의 통일성 속에서 제도혁명당의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찾아내려는 체제옹호론적 해석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공식적 정통적 해석이 현실 정치의 방편으로 제시하는 ‘혁명의 제도화’, ‘혁명의 지속’ 등의 슬로건이 혁명 이념을 탈계급화시키면서 이념 속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을 은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의 혁명사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 수정주의의 흐름 속에서도 다양한 이해가 있다. 히이와 같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혁명 과정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흐름 중에서도 급진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마치 멕시코혁명이 ‘좌절당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것처럼

그린다. 그러나 혁명의 성격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사빠따주의나 마곤주의가 그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요구를 내걸었지만, 전자가 내건 공동체적 토지소유는 근대적 농민적 토지소유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와는 애초에 연관이 없는 것이었고, 후자의 노동해방 사상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접목된 아나키즘에 불과한 것으로 멕시코혁명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람시주의자인 프르도바는 멕시코혁명이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혁명성’을 부정한다. 그는 디아스 시대나 혁명 이후 시대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란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지척했듯이 혁명을 기점으로 아시엔다 제도가 해체되었고,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멕시코 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반동적인 길’을 폐기하고 ‘아래로부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혁명은 ‘반봉건혁명’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엔리케 세모의 견해가 좌파 수정주의 해석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역시 새로운 연구에 의해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게라(Francois-Xavier Guerra)가 1988년에 출간한 저서 『멕시코: 구체제에서 혁명으로』(*México, del antiguo régimen a la Revolución*, 2 tomos, FCE, México.)는 좌파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멕시코사회학지』가 주재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 연구가 푸레(Francois Furet)의 프랑스혁명사 연구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멕시코혁명을 조명한 것으로, “계급이란 분석적 범주보다는 현실에서 드러난 사회적 행위자에서 출발하여” 혁명사를 서술한 것이고 밝힌다(Guerra, 1989).

그는 멕시코 사회에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자유주의적 개혁의 전통과 전통사회적 요소의 대립을 지적하고, 혁명과 1917년 헌법은 전통사회의 요소가 19세기의 급진적 자유주의(와 1857년 헌법)에 대항한 복수극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좌파학자들이 강조하는 농민혁명의 이념으로서 사빠따주의가 실상은 토지개혁 운동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근대정치의 논리와 배치되는 “과거로 향한 복고주의적 운동”일 뿐이라고 독특하게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혁명의 결과도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데, 먼저 내전의 결과로 국가가 약화되면서 ‘권력의 사유화’(‘사’에 의한 ‘공’의 포섭)가 야기된 부정적인 측면을, 다른 한편으로 혁명을 정당화하는 담화를 통하여 ‘민족’에 대한 일체감이 확보된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게라의 연구는 마치 프랑스혁명사 연구에서 쾨레의 저작이 나타난 뒤에 볼 수 있는 논쟁과 유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 같다. 과거의 좌파적 해석들이 게라의 도전에 얼마나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guilar M. Manuel

1980 "Estado y revolución en el proceso mexicano," en Gilly et al. (1980).

Bailey, David C.

1978 "Revisionism and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8, no. 1.

Bartra, Armando

1980 "La revolución mexicana de 1910 en la perspectiva del magonismo," en Gilly et al. (1980).

Bartra, Roger

1987 *Estructura agraria y clases sociales en México*, Ediciones Era, México. (제 9 판, 초판은 1974년)

Carr, Barry

1980 "Recent Regional Studies of the Mexican Revolu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15, no. 1.

Cockcroft, James D.

1976 *Intellectual Precursors of the Mexican Revolution, 1900~1913*, University of Texas, Austin. (초판은 1968년)

Córdova, Arnaldo

1979 *La política de masas y el futuro de la izquierda en México*, Ediciones Era, México.

1985a *La formación del poder político en México*, Ediciones Era, México. (제 14 판, 초판은 1972년)

1985b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Ediciones Era, México. (제 14 판, 초판은 1973년).

1980 "México, revolución burguesa y política de masas," en Gilly et al. (1980).

de la Peña 1987 *La formación del capitalismo en México*, Siglo XXI, México.
(제14판, 초판은 1975년).

Hart, John

1978 "The Urban Working Class and the Mexican Revolution: the Case of the Casa del Obrero Mundial,"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8, no. 1.

García, Alma M.

1987 "Recent Studies in Nineteenth-and Early-Twentieth-Century Regional Mexican Histor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2, no. 2.

Gilderhus, Mark T.

1987 "Many Mexicos: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Recent Historiograph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2, no. 1.

Gilly, Adolfo

1980 "La guerra de clases en la revolución mexicana: Revolución permanente y auto-organización de las masas," en Gilly et al. (1980).

Gilly, A. et al.

1980 *Interpretaciones de la revolución mexicana*, UNAM/Editorial Nueva Imagen, México.

Goldfrank, Walter L.

1979 "Theories of Revolution and revolution Without Theory: the Case of Mexico," *Theory and Society*, no. 7.

Guerra, Francois-Xavier

1989 "Teoría y método en el análisis de la Revolución mexica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no. 2.

Harris, Richard L.

1982. "A Critique of North American Leftist Analyses of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 32, Winter, vol. 9, no. 1.

Katz, Friedrich

1976 "Peasant in the Mexican Revolution of 1910," in J. Spielberg, J. Whiteford and S. Whiteford eds. *Forging a Nation: A Comparative View of Rural Ferment and Revolt*.

1989 "Pancho Villa y la revolución mexica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no. 2, abril-junio.

Knight, Alan

1986a “La Revolución Mexicana: ¿burguesa, nacionalista, o simplemente una ‘gran rebelión’?”, *Cuadernos Políticos*, no. 48, oct.-dic.

1986b “Mexican Peonage: What Was It and Why Was It?”,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Leal, Juan Felipe

1986 “The Mexican State, 1915~1973: A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N. Hamilton, T. Harding eds. *Modern Mexico: State, Economy, and Social Conflict*, Sage Publication, Beverly Hills, Cal.

Meyer, Michael

1969 “Perspectives on Mexican Revolutionary Historiography,” *New Mexico Historical Review*, vol. 44, no. 2.

Paz, Octavio

1961 *The Labyrinth of Solitude: Life and Thought of Mexico*, Grove Press, Inc., New York.

Reyes E., Ramiro

1973 “La burguesía y el estado,” en Varios, *La burguesía mexicana: cuatro ensayos*, Editorial Nuestro Tiempo, México. (1981 , 제 4 판)

Rudenko, B.T.

1983 “La estructura social de la sociedad mexicana en vísperas de la revolución de 1910~1917,” en Rudenko et al., *Ensayos de historia de México*, Pyz SA., México.

Ruiz, Ramon E.

1980 *The Great Rebellion Mexico, 1905~1924*, W.W. Norton & Co., New York.

Semo, Enrique

1975 “Acerca del ciclo de las revoluciones burguesas en México,” *Socialismo*, no. 3; Semo (1985)에 재수록.

1978 “La revolución de 1910~1920,” en Semo (1985).

1980 “Reflexiones sobre la revolución mexicana,” en Gilly et al. (1980).

1985 *Historia mexicana, economía y lucha de clases*, Ediciones Era, México. (제

22 이베로아메리카 研究

5 판, 초판은 1978년).

Tardanico, Richard

1984 "Revolutionary Mexico and the World Economy: the 1920s in Theoretical Perspective," *Theory and Society*, vol. 13, no. 6.

Tobler, Hans Werner

1989 "La Revolución mexicana: algunas particularidades desde un punto de vista comparativ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no. 2.

Varios,

1928 "Discusión del problema del movimiento revolucionario en las colonias," en *VI Congreso de la Internacional Comunista: informe y discusiones (segunda parte)*, Cuadernos de Pasado y Presente, México (1978).

Womack, John, Jr.

1970 "The Spoils of the Mexican Revolution," *Foreign Affairs*, July.

이성형

1990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 논쟁』,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월.

Left Revisionist Interpretations of Mexican Revolution

Rhee, Sung-Hyong

This study focuses on left revisionist interpretations of MR since late seventies. MR has been evaluated in different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prista ideologues, MR was described as “multiclass based”, “popular” revolution which tried to overcome economic backwardness and political repression. American academics also advocate such interpretation. Left revisionist historians challenged this kind of evaluations, objecting to the dominant view that MR would be “on-going process” and was materialized into PRI’s one party democracy. They argue MR was already “dead”, and appeal to form a new historical bloc to transform crisis-ridden Mexican society. However, leftist interpretations have many a different versions: Trotskyist (A. Gilly), Leninist (E. Semo), and Gramscian (A. Córdova) one. These appreciations also confront challenges from new studies.